

THE USUAL P&G STORY

Ferdinando Frega — Nando the Scribe



흔한 P&G 이야기

THE P&G SAGA · 05

흔한 이야기. 남자들. 준비되지 않은. 정리되지 않은. “여자가 온다”는 말이 정확히 그 뜻이라고 — 그 이상은 아니라고 믿는.

전보는 분명했다: 여자 한 명. 천사가 아니다. Juliana가 아니다. Gillette가 아니다.

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. 음식. 음료. 필리핀 요리사까지. 그러나 아무도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는 않았다. 여자가 들어올 때 중요한 단 한 가지, 그 방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

그녀가 들어온다. 차분한 미소. 흔들림 없는 걸음.

“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Juliana예요. 포르투갈 사람이에요. 7월 1일부터 이곳으로 옮겨 와요. 시작하기 전에 동료들을 만나고 — 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.”

침묵. 남자들은 일식을 보듯 그녀를 본다 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, 멈추지 못한 채.

“실례지만 — 어느 부서에서 오셨죠?”

“우리는 광고 대행사들을 조율해요. 슬로건 값을 치르죠. 아이디어를 가져오고요.”

“어느 회사들에서요?”

침묵.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.

방에서 가장 목소리 큰 남자가 — 언제나 가장 목소리 큰 남자가 — 몸을 앞으로 내민다.

“그쪽은요? 어느 부서에 배치되셨는데요?”

그녀가 미소 짓는다.

“제 자리는 맨 위예요. Kamp 할아버지 바로 옆. J 씨 가까이요.”

“그럼 회사의... 영적인 부서에 계신 건가요?”

“어떤 의미에선요. 하지만 저는 수녀가 아니에요. 수녀들처럼 설교 하죠 — 다만 수십억 단위로 할 뿐이에요.”

남자들이 눈빛을 주고받는다. 누군가 속삭인다:

“도대체 당신 누구야?”

그녀가 불가로 다가간다. 진짜인 무언가를 보듯 불을 바라본다. 그리고 돌아선다.

“저는 Gillette의 새 CEO예요. 130년 만예요. 그리고 내일 아침, 괜찮으시다면 말끔히 면도하고 출근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. 이미지도 사업의 일부니까요. 그리고 오늘... Gillette는 여자예요.”

Nando the Scribe